2018. 9. 6. [목] 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2018년 9월 6일 목요일 028면 수도권/전국

전세계 석학 180명 경기 집결… DMZ 보존 모색 나선다

오늘부터 이틀간 'DMZ 국제포럼'
패널토론·현장 모니터링 등 진행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2018 경기도 DMZ 국제 포럼'이 오는 6~7일 개최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최하고 ESP아시아사무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루돌프 드 그룻 ESP의장 등 국내외 민·관·학 관계자 180여 명이 모여 '평화를 위한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포럼 첫날인 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회사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세션별 토론과 전체토론 등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 마리엘자 올리베리아 박사가 '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현안' 남아공 환경부 크리스토 마라이스 박사가 '접경지 생태계서비스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국립공원관리공단 허학영 부장이 '한국내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관리'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또 중앙대 문태훈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국립생태원 박은진 박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은영 팀장, 문화재청 여규철 사무관, 경기연구원 이양주 박사, 전곡선사박물관 이한용 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세션2'에서는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존모니터링센터(WCMC)의 브라이언 맥셰리 박사가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주민협력', 일본 지질공원사무국 오노 마레카즈 박사가 '일본 지질공원 관리사례', 연천군 윤미숙 학예사가 '연천군 지질공원 관리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고려대 전성우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원연구원 김정수 박사, 제주연구원 김태윤 박사, 경향신문 이기환 논설위원,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상명 청장, DMZ두루미타운 운영협의체 진익태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패널토론을 벌이게 된다.

끝으로 루돌프 드 그룻 ESP의장이 좌장으로 나설 전체토론에서는 포럼 참석자는 물론 환경, 경기도, 강원도, EAAFP(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DMZ 일원의 지속가능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주고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한스자이델재단과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김포실천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특별세션-남북협력 제안 및 DMZ 일원 모니터링 사례 포스터 발표회' 축하 문화 공연 등도 함께 펼쳐진다.

포럼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연천지역 DMZ 일원에 대한 현장답사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임진강, 호로고루성지, 전곡리 유적, 급수탑 및 경원선 등 주요 명소들을 돌아본 뒤 연천군청에서 '연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번 DMZ 국제포럼은 분단의 아픔, 단절의 공간에서 평화와 생태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DMZ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주홍 기자

기호일보
2018년 9월 6일 목요일 K03면 종합

평화의 땅 DMZ '생태계 보전' 해법 찾는다

道 의정부서 내일까지 포럼
국내외 관계자 180명 참여

'2018 경기도 DMZ 국제포럼'이 6일부터 7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ESP아시아사무소가 주관하며, 루돌프 드 그룻(Rudolf de Groot)ESP 의장 등 국내외 민·관·학 관계자 180여 명이 모여 '평화를 위한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주제로 토론한다.

첫날은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의 개회사와 정대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세션별 토론과 전체토론 등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마리엘자 올리베리아(Marielza Oliveria)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 박사가 '아시아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현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크리스토 마라이스(Christo marais)남아공 환경부 박사가 '접경지 생태계서비스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허학영 국립공원관리공단 부장이 '한국 내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관리'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좌장으로 문태훈 중앙대 교수가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권은진 국립생태원 박사, 김은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팀장, 여규철 문화재청 사무관, 이양주 경기연구원 박사,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브라이언 맥셰리(Brian MacSharry)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존모니터링센터(WCMC) 박사가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주민 협력'을, 오노 마레카즈(大野希一)일본 지질공원사무국 박사가 '일본 지질공원 관리사례'를, 윤미숙 연천군 학예사가 '연천군 지질공원 관리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전성우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정수 강원연구원 박사, 김태윤 제주연구원 박사,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상명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패널토론을 벌이게 된다.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경기방송
2018-09-06 15:19

이화영 경기부지사 'DMZ, 지속가능발전의 세계적 모델로 만들 것'

[박상욱 기자]

2018 경기도 DMZ 국제포럼, 의정부에서 개최

[KFM 경기방송 = 박상욱 기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세계적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화부지사는 오늘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경기도 DMZ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북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끌 최적지"라며 "평화와 번영은 DMZ 일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국제환경 전문기구인 "생태계 서비스 파트너십" 아시아사무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환경 전문가 등 180여 명이 참석해 "평화를 위한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며 DMZ의 발전방안을 모색했습니다.